

韓國佛教의 密教經典 傳來攷

朴 泰 華

- I. 緒 言
- II. 本 論
 - 1. 新羅僧이 이룩한 密教典籍
 - 2. 密教經典 傳來攷
- III. 結 語

I. 緒 言

우리 韓國에 佛教가 처음으로 傳來한 것은 高句麗 小獸林王 2年(372)에 順道和上이 佛像과 佛經을 傳한 것을 그 始初로 하는 것이 學界의 定說로 되어 있다.

이 初傳의 記錄은 어디까지나 國家的인 公傳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私的으로 一般民間에 佛教가 傳來한 것은 적어도 그 以前일 것으로 推測되어야 할 것이다.

百濟에는 枕流王 元年(384)에 摩羅難陀가 東晉으로부터 들어와서 宮中에서 生活하며 王의 禮數을 받은 것이 亦是 百濟에 佛教의 初傳記錄으로 通說이 되어 있다.

그 後 百濟 聖王 4年(526)에 謙益和上이 印度에서 歸國할 때에 梵本

律部를 傳來하여 翻譯한 것이 百濟에 佛經傳來的 記錄의 始初로 되어 있다.

新羅와 高麗에 聖典이 傳來한 記錄을 僧傳과 史傳의 記錄을 除外하고 다만 三國遺事 卷3 ‘前後所將舍利’條만을 中心으로 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明觀 傳來時

眞興王 26年(565)

一千七百餘卷

(2) 慈藏 傳來時

善德王 12年(643)

四百餘函

(3) 丘德(高句麗)僧 傳來時

興德王 2年(827)

若干函

(4) 元弘 傳來時

文聖王 13年(851)

若干軸

(5) 普耀 傳來時

新羅末(?)

傳來 經卷數 亦是 未詳

(6) 默和上 傳來時

敬順王 2年(928)

大藏經來(經卷數 未詳)

(7) 義天 傳來時

宣宗 3年(1086)

天台教觀而來(三國遺事文)

義天은 宋으로부터 歸國하여 佛典 및 經書 一千卷을 獻上함. 또 遼·

宋·日本 等으로부터 四千餘 卷의 章疏를 求하여 刊行함.(東國通鑑, 東史會綱, 東國史略 等文).

(8) 慧照 傳來時

睿宗代(1106~1122)

遼本大藏經 三部

以上은 우리 韓國에 經敎가 傳來한 記錄들을 摘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중에는 顯密兩敎의 門別을 區分하기가 不敢하다. 따라서 우리 韓國에 密敎가 傳來한 史實들을 新羅時代를 中心으로 略記하여 密敎經典 傳來事實에 아울러 參考에 資하고자 한다.

먼저 韓國佛敎史중 百濟時代의 佛敎에서 密敎의 史的인 部面을 살필 때에 놓쳐서는 안될 重要한 史實하나가 ‘日本書紀 卷20 敏達紀’條에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傳해지고 있다. “六年 冬十一月 庚午朔 百濟國王獻經論若干卷 并律師 禪師 比丘尼 呪禁師 造佛工 造寺工六人 遂安置 難波大別王寺.”라 하였다. 그리고 또 이와 同一한 內容의 記錄이 前記 ‘日本書紀’以外에도 ‘扶桑略記 卷3’, ‘三國佛法傳通緣起 卷2’, ‘元亨釋書 卷20’, ‘本朝高僧 卷69’ 等の 많은 日本의 史書에 傳하고 있다. 이 記錄중의 呪禁師는 呪師 또는 法呪師라고도 하며 呪文을 誦하여 禍祟邪氣를 拂掃하고 或은 醫療業에 從事하기도 하여 佛敎行事의 一部를 擔當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컫는 것이다. 한 例로 ‘金光明最勝王經 卷7 大辯才天女品’에, “이와 같이 沐浴을 마치고 淨衣를 입고 壇場에서 나와서 淨室內에 들어 가서 呪師는 그로 하여금 弘誓願을 發하게 하여 깊이 衆惡을 끊고 항상 諸善을 닦게 하고 모든 有情에게 大悲心을 일으키게 할지니라.”라 하였다. 또 ‘十誦律 卷2’, ‘優婆塞五戒相經’ 等에도 이 呪師의 護念救解를 說하고 있다. 또 한편 官職으로서의 呪禁師에 關한 記錄은, ‘新唐書 卷48 百官志’, ‘唐六典 太醫署’, 日本國 ‘大寶令’ 等に 呪禁博士 呪禁師 呪禁工 呪禁生 等으로 記錄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呪文을 唱誦하여 祓除興樂하는 醫業에 從事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記錄에 依

하면 呪禁師는 本來부터 佛教 特別 密敎와 直接的인 關聯이 있는 官職이었음을 알 수 있다. 卽 雜部 密敎에 屬하는 明呪類로 犍度呪(Khandha Paritta), 孔雀呪(Mora Paritta), 幢頭呪(Dhajagga Paritta), 阿屯那智呪(Ātānātiya Paritta) 등은 모두 防護除厄하는 明呪이며, 이들 외에도 治齒呪, 腹痛呪, 治毒呪 등의 治病을 目的으로 하는 明呪들도 있었다. 이들의 明呪法에 能達한 呪法師를 呪禁師라고 呼稱하였을 것으로 推測된다. 要컨대 正純密敎의 阿闍梨(Ācārya=教授師, 軌範師)에 對한 雜部密敎의 呪禁師라 할 것이다.

前記 ‘日本書紀 卷20’에 보이는 敏達天皇 6年은 百濟 第27代 威德王 24年 丁酉年이요, 西紀 577年이다. 그러므로 이 當時 以前에 이미 百濟에도 雜部 密敎의 經典이 傳來된 事實을 明察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記錄은 韓國側의 記錄이 아니요, 日本側의 記錄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한편 中國에 있어서는 東晉 元帝 6年 壬午 正月 西紀 322년에 龜茲國(Kutcha)의 帛尸梨密多羅가 ‘大孔雀王神呪經 1卷’, ‘孔雀王雜神呪經 1卷’을 傳譯하였다. 그는 西紀 312년에 中國에 와서 建初寺에 住하면서 많은 密敎經典을 翻譯하여 密敎 弘通에 힘쓰다가 西紀 342년에 入寂하였다. 帛尸梨密多羅는 前記 2經 以外에도 또 ‘大灌頂經 12卷’도 翻譯한 바가 있다. 이 ‘灌頂經’의 翻譯 年代는 正確하지 않으나, 東晉 元帝代인 317~322年間の 譯으로 본다. 따라서 百濟에 佛教가 初傳한 年代를 枕流王 元年(384) 摩羅難陀가 東晉으로부터 들어와서 傳來된 것으로 보면, 百濟가 呪禁師를 日本에 派送한 威德王 24年(577)代에는 百濟에 雜密이 傳來하여 行法될 수 있는 充分한 可能性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結論으로 말하여 577年代 以前에 이미 百濟에도 種類는 未詳한대로 두고 雜部 密敎系의 密敎經典이 傳來하고 있었다는 史實을 呪禁師 派日의 記錄으로써 證明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新羅에 密敎와 및 密敎經典이 傳來한 史實들을 몇 가지 略記하고자 한다.

明朗法師에 關한 記錄은 三國遺事 卷5 明朗神印條, 同 惠通降龍條, 同 卷2 文虎王法敏條 等に 보인다. 그는 善德女王 元年 入唐, 貞觀 9年 乙未에 來歸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다.

(新羅 第27代 善德女王 元年是 唐 太宗 6年, 貞觀 6年 壬辰이요, 西紀 632年 이다. 貞觀 9年 乙未는 新羅 善德女王 4年 仁平 2年이요, 唐 太宗 9年, 貞觀 9年 乙未요, 西紀 635年이 된다.)

明朗法師는 이 當時에 唐土에서 東晉 元帝代에 帛尸梨密多羅譯의 ‘大灌頂神呪經’ 12卷을 新羅에 傳來하였다. 그리하여 이 灌頂經의 第7經인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의 行法에 依하여 ‘文豆(頭)婁(Mudra = 印契…神印)’法 곧 神印秘法을 行하여 外寇를 攘災하였고, 因하여 神印宗을 開創하여 그 宗祖가 되었다. 그는 또 金光寺·金剛寺·四天王寺 等を 創建하기도 하였다.

惠通國師의 密敎 傳法에 關한 記錄 亦是 三國遺事 卷5 惠通降龍條에 보인다. 곧 ‘往唐謁無畏三藏請業’, ‘服勸三載’, ‘時唐室有公主疾病 高宗請救於三藏 舉通自代’, ‘麟德二年乙丑 還國’ 等の 記錄이다. 惠通國師가 入唐하여 善無畏三藏에게 受法한 事實을 認定한다면 따라서 提起되는 問題點은 ① 唐 高宗 公主의 救病 事實과, ② 麟德 2年 歸國說의 두 가지의 問題點이 있다. 이 두 疑問은 筆者의 拙稿 ‘新羅時代의 密敎傳來攷’에서 解決를 試圖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省略한다. 다만 惠通國師는 入唐하여 善無畏三藏에게서 胎藏界의 密法과 大日經을 傳受하여 新羅에 歸國하여 摠持宗을 開創하였다는 史實만을 여기에 明證해 두는 바이다.

惠日大師에 關한 記錄은 우리 韓國의 史書에서는 全然 찾아 볼 수 없으나, 다만 中國의 文獻중에서 다음 세 가지 文獻을 들 수 있다.

- ① 大唐青龍寺 三朝供奉行狀記 1卷(未詳)
- ② 兩部大法相承師資付法記上下 2卷(時表記)
- ③ 大唐青龍寺故三朝國師惠果和尚碑銘(空海撰)

以上の 3文獻중에서 惠日大師에 關한 記錄을 抄錄하면 다음과 같다.

① 行狀記中

(前略)建中二年 新羅國僧惠日 將本國信物奉上和尚 求授胎藏金剛界蘇悉地等
竝諸尊瑜伽三十本 已來授訖 精通後時 却歸本國 廣弘大教 (下略).

② 付法記 上卷中

略叙金剛界大教王經師資相承付法次第記 (中略) 青龍寺東塔院 惠果阿闍梨
(中略) 傳灌頂教同學惠應阿闍梨 惠則成都府惟尚 汴州辨弘 新羅國僧惠日 日
本國僧空海 (中略) 已上十四人皆傳授大教次阿闍梨位 (中略) 重證勝法教流
天下 大法盛傳 所以新羅諸國 經逾數萬 航海忘軀來趨我唐 至求勝法 (下略)

③ 付法記 下卷中

略叙傳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大教相承付法次第記 (中略) 時善無畏三藏
復將此大毘盧遮那大教王傳付大興善寺沙門一行及保壽寺新羅國沙門玄超 (中
略)次沙門玄超阿闍梨復將 (中略) 惠果阿闍梨阿闍梨又傳付成都府僧惟尚 汴
州辨弘新羅國僧惠日 悟真 日本國僧空海 (下略).

④ 惠果和尚碑銘中

詞陵辨弘經五天而接足 新羅惠日涉三韓而頂戴.

以上에 抄錄된 記錄에 依하면 惠日大師는 入唐하여 青龍寺 惠果和尚
門下에서 金胎兩部大法과 蘇悉地法 및 諸尊瑜伽 30本을 新羅에 傳來하
였다. 惠日大師의 歸國年代는 正確한 記錄이 없으나 西紀 800年 前後일
것으로 筆者가 推斷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歸國에 앞서 그의 스승인
惠果阿闍梨로부터 前記한 3部秘法인 胎藏界(大日經)와 金剛界(金剛頂經)
및 蘇悉地法(蘇悉地經)의 3部秘經과 아울러 諸尊瑜伽 30本을 新羅에 傳
來하였으나, 이중 3大秘經은 그 經法이 分明하므로 論攷의 餘地가 없
으나, 다만 諸尊瑜伽 30本중에는 密教肝心の 論藏인 ‘發菩提心論’이 包
含되어 있었을 것으로 論證한 바 있으므로 本 ‘發菩提心論’도 惠日大師
에 依하여 新羅에 傳來된 것으로 보는 바이다. 이리하여 惠日大師는
密敎의 3學能詮의 經律論의 根本聖典을 完全히 同時에 우리 新羅에 傳
來한 密敎의 名匠이 되는 것이다. 密敎의 經律論 3學能詮의 根本聖典은
다음과 같다.

經藏(定); 大日經(7卷), 金剛頂經(3卷).

律藏(戒); 蘇悉地經(3卷), 蘇婆呼童子經(3卷).

論藏(慧) ; 發菩提心論(1卷), 釋摩訶衍論(10卷).

以上の 明朗・惠通・惠日 等 3師 以外에도 文獻上에 보이는 新羅의 密敎師僧으로서는 義林・玄超・悟眞・不可思議・慧超・均亮・金和尚 等の 數 많은 名匠大德들이 있었으나, 이 중 義林師는 103歲의 高齡時까지도 新羅에 密敎를 弘布하였다는 記錄이 ‘顯戒論 緣起 卷上’, ‘元亨釋書 卷1’ 等に 보이고, 不可思議師는 新羅 零妙寺의 僧으로서 在唐 當時에 스승인 善無畏三藏의 口說을 받아 ‘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 2卷을 著述하여 現在까지 流傳하고 있는 胎藏界行法の 最貴한 典籍이 되고 있다. 그리고 慧超師는 저 有名한 ‘往五天竺國傳’의 著者이며, 그도 또한 그의 스승인 金剛智三藏의 口說을 筆受翻譯한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敎王經序’가 現傳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중의 義林・玄超 兩師의 肖像이 日本 長寬 元年(1163) 觀祐의 寫本으로 京都大學久原文庫藏本으로 現存하고 있다는 事實을 여기에 明記해 둔다.

II. 本 論

新羅時代의 師僧들이 이룩한 密敎關係의 典籍들을 1) 密敎專圓의 所依典籍과 原은 密敎의 經典이로되 顯敎에서도 依用하고 있는 2) 顯密兼圓의 典籍으로 區分하고, 이를 다시 ㉠ 中國 唐土에서 이룩된 것과 ㉡ 新羅 國內에서 이룩된 것으로 나누어 整理하고, 다음으로 密敎의 많은 經典들의 傳來 事實을 考定하고자 한다. 이를 考定함에 있어서는 譯者와 및 傳來年代를 考定하는 方法으로 하겠다. 同本 異譯이 있을 때에는 모두 다 取擇하기로 하고, 또 傳來人이 2人 以上일 때에도 다 들기로 한다.

1. 新羅僧이 이룩한 密敎典籍

1) 密敎專圓 所依典籍

㉠ 中國 唐土에서 이룩된 典籍

· 不可思議

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 2卷(現存)

· 慧超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序(現存)

· 圓測

仁王般若經疏 6卷(現存)

㉡ 新羅 國內에서 이룩된 典籍

· 憬興 十二門陀羅尼經疏 1卷

· 智仁 十一面經疏 1卷

· 道倫 十一面經疏 1卷

2) 顯密兼圓의 典籍

· 元曉 金光明經疏 8卷

· 勝莊 最勝王經疏 8卷

· 憬興 金光明經略意 1卷

金光明最勝王經述贊 5卷

金光明最勝王經略贊 5卷(現存)

最勝王經疏 10卷

灌頂經疏 2卷

· 太賢 金光明經古迹記 4卷

金光明經料簡 1卷

般若理趣分經注 2卷

仁王般若經古迹記 1卷

· 道倫 金光明經略記 1卷

- 道證 般若理趣分經疏 1 卷
- 義寂 般若理趣分經幽贊 1 卷
- 玄範 仁王般若經疏 2 卷
- 禮元 仁王經注 四卷科 1 卷

以上の章疏는 모두가 다 新羅 國內에서 이록된 것이며, 이들 章疏의 原典經을 集約하면 다음의 4 大經이 된다.

- ① 金光明經
- ② 灌頂經
- ③ 般若理趣經
- ④ 仁王般若經

이들 4 大經의 傳來 事情은 次項에서 論考하기로 한다.

2. 密敎經典 傳來攷

○ 大日經

譯者 및 翻譯年代

善無畏(637~735)〔或 善無畏·一行 共譯〕

唐 玄宗 開元 13年(725) 於大福先寺譯

新羅 傳來人 및 傳來年代

- ① 惠通 傳來, 聖德王代(702~736)
- ② 惠日 傳來, 元聖王(785~798) 中期~憲德王(809~825) 初期 即 800年頃.

※ 大唐青龍寺三朝供奉大德行狀記 1 卷中,

建中元年 新羅國僧惠日 將本國信物 奉上和尚 求授 胎藏金剛界蘇悉地等 並 諸尊瑜伽三十本 已來授訖 精通後時 却歸本國 廣弘大教.

의 文證이 있음.

- ③ 義林 傳來 哀莊王 6年 以前(805 以前)

※ 後出, 破地獄三種悉地眞言儀軌條 參照, 有文證.

- ④ 不可思議 傳來

※ 後出 大日經供養次第法疎條 參照.

◦ 金剛頂經

譯者 및 翻譯年代

※ 이 金剛頂經은 3 種의 經이 있으나, 眞言密敎의 金剛界 正所依의 經典으로
는 다음의 ①不空譯 3 卷本으로 한다.

① 不空(705~774)譯

金剛頂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大敎王經 3 卷
唐 天寶 3 年(753)譯

② 施護(未詳 生沒 年代, 980年 來宋)譯

佛說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三昧大敎王經 30 卷
宋 太宗 太平興國 7 年~雍熙 2 年(982~985) 於興國寺譯

③ 金剛智(671~741)譯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4 卷
唐 開元 11年(723) 於資聖寺譯

新羅 傳來人 및 傳來年代

上記 ① 不空譯 3 卷本을 惠日 傳來

※ (前出 大日經의 ② 惠日 傳來와 同時 同條 參照)

◦ 蘇悉地經

譯者 및 翻譯年代

善無畏(637~735)譯

唐 開元 14年(726)譯

新羅 傳來人 및 傳來年代

惠日 傳來.

※ (前出 大日經 惠日 傳來 同條 參照)

◦ 灌頂經

譯者 및 翻譯年代

東晉 帛尸梨密多羅(312年 來晉, 342年 沒)譯

東晉 元帝代(317~322)譯

新羅 傳來人 및 傳來年代

明朗 傳來 善德王 4年(635)

※ 本 灌頂經 12卷은 譯者와 卷數 및 그 思想內容의 僞作 等에 對한 說論이 區
區하나 여기서는 關係하지 않고 다만 一般 通說에 依存한다.

◦ 金光明經

譯者 및 翻譯年代

① 曇無讖(412年 姑藏 來著, 433年 沒)譯

金光明經 4卷(北凉 玄始年中 譯)

② 耶舍崛多(?)譯

金光明更廣大辯才陀羅尼經 5卷

後周 武帝代(561~577)譯

③ 眞諦(?)譯

金光明帝王經 7卷

梁元帝 承聖 元年(552)譯(失譯)

④ 闍那崛多(?)譯

金光明銀主陀羅尼品 1卷

隨 開皇 17年(579)譯

⑤ 寶貴·彥琮·費長房 等 前 4譯合採本

合部金光明經 7卷(隨 開皇 17年(597)合本)

⑥ 義淨(635~?) 則天武后 奉勅譯

◦ 金光明最勝王經 10卷

長安 3年(703)譯

新羅 傳來人 및 傳來年代

※ 傳來人 및 傳來年代가 다 未詳이나, 元曉(617~686), 憬興<神文王代(681~691)高僧>, 太賢<景德王代(742~764)高僧>, 勝莊(?), 道倫(?) 등이 다 本經의 章疏를 著述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疏家들중의 가장 앞선 年代인 元曉大師 入寂 年인 686年 以前에 이미 新羅에 本經이 傳來하였을 것으로 본다. 또 그보다 後代인 景德王 12年(753)에 太賢이 境內에서 本 光明經을 講하여 비를 내리게 한 記錄이 三國遺事 卷4에 보이기도 한다. 다만 義淨(703)譯 10卷 本은 太賢의 在世 弘敎時代(742~764)에 傳來하였을 것으로 본다.

◦ 般若理趣經

譯者 및 翻譯年代

① 玄奘譯

大般若 第10會 般若理趣品 1卷(660~663)譯

② 菩提流志譯

實相般若波羅蜜經 1卷(693)譯

③ 金剛智譯

金剛頂瑜伽理趣般若經 1卷(翻譯年代 未詳)

④ 不空譯

大樂金剛不空眞實三摩耶經 1卷(763~771)譯

⑤ 施護譯

佛說遍照般若波羅蜜經 1卷(980, 來宋後)譯

新羅 傳來人 및 傳來年代

※ 本經의 新羅 傳來人 및 傳來年代는 다 未詳이나, 道證(圓測(612~696)의 弟子), 義寂<義湘(625~702)의 弟子> 등의 本經의 疎家가 있었으니, 推測 컨대 아마 그 以前에 傳來한 것으로 본다.

◦ 仁王經

譯者 및 翻譯年代

① 鳩摩羅什(343~413)譯

仁王般若波羅蜜經 2卷(?)

② 不空(705~774)譯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2卷(?)

新羅 傳來人 및 傳來年代

※ 本經 亦是 傳來人 및 傳來年代가 未詳이나, 圓測(612~696), 玄範(?), 禮元(?) 等の 疎家가 있어 當代에 傳來한 것으로 본다.

◦ 隨求陀羅尼經

譯者 및 翻譯年代

① 寶思惟譯

佛說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神呪經 1卷(963)譯

② 不空譯

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儀軌 1卷
(746~774)譯

③ 不空譯

普遍光明清淨熾盛如意寶印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 2卷(?)

④ 菩提流志譯

佛心經品亦通大隨求陀羅尼經 2卷(?)

新羅 傳來人 및 傳來年代

※ 本經의 傳來人도 未詳이다. 傳來年代는 三國遺事 卷3 '五台山寶叱徒太子傳記'에 依하면 寶川이 '誦隨求陀羅日夕爲課'로 한 記錄이 있으니, 新羅 聖德王 4年(705) 以前에 이미 新羅에 傳來된 것으로 본다.

◦ 無垢淨光陀羅尼經

① 彌陀山譯

無垢淨光大陀羅尼經 1卷

② 施護譯

佛頂放無垢光明入普門觀察一切如來心陀羅尼經 2卷

※ 新羅 傳來人 및 傳來年代 모두 未詳이나, 最近 佛國寺 釋迦塔의 修塔工事時에 同 塔內에서 發見되어, 世界 最古의 印刷物로 報道된 바 있으며, 釋迦塔의 建塔年代는 佛國寺 創建年代인 景德王 10年(751)으로 보는 것이 通說이다. 그러므로 本經의 新羅 傳來年代는 751年 以前으로 본다.

◦ 破地獄三種悉地眞言儀軌

① 善無畏譯

佛頂尊勝心破地獄轉業障出三界秘密三身佛果三種悉地眞言儀軌

② 善無畏譯

三種悉地破地獄轉業障出三界秘密陀羅尼法 1卷

新羅 傳來人 및 傳來年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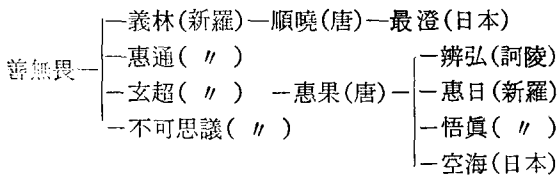
義林國師傳來(哀莊王 6年 805年 以前)

本經을 義林國師가 新羅에 傳來한 事實의 記錄은 다음과 같다.

顯戒論緣起 卷上에,

大唐國 開元朝 大三藏 婆羅門國王子 法號善無畏 從佛國大那蘭陀寺轉大法輪 至大唐國轉付囑傳法弟子僧義林 亦是國師大阿闍梨 一百三歲 今在新羅國 轉大法輪 又付唐弟子僧順曉 是銀國道場大阿闍梨 又付日本國僧弟子僧最澄 轉大法輪 僧最澄是第四付囑傳授. 唐 貞元 二十一年 四月 十九日 書記.

이 記錄은 唐의 順曉가 그의 스승인 義林國師가 103歲에 新羅에서 傳法하고 있는 事實을 貞元 21年(805) 4月 19日에 記錄한 것이다.



※ 義林·玄超 兩師의 肖像이 現在 京都大學 久原文庫藏本으로 現存하고 있다. 이 肖像은 日本 長寬 元年(1163) 觀祐의 寫本으로 되어있다. 兩師는

이와 같이 肖像으로 畫寫하여 保存하리만큼 尊崇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곧 最澄은 日本 天台密敎의 開祖요, 空海는 日本 眞言密敎 東密의 開祖이다. 最澄과 空海 兩師는 日本 佛敎界는 勿論이고, 日本 國史上 가장 偉大한 高僧으로 日本 國民 社會에서 尊崇받고 있는 名匠들이므로 이들을 尊崇한 나머지 最澄의 法祖 義林과 空海의 法祖 玄超, 이 兩師도 그들의 法祖로서 尊崇되었음은 當然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祖上崇拜思想 追遠報本之念이 強한 東洋民族, 特히 日本人들로서는 더욱 當然之事라 할 것이다. 이들의 尊崇을 받아 온 우리 新羅의 義林·玄超 兩師는 新羅佛敎 곧 우리 韓國 佛敎史에 있어서 하나의 크나큰 矜持가 되는 것이므로 韓國 佛敎史는 이 義林과 玄超 兩師에 對하여 마땅히 새로운 認識을 가져야 할 것이다.



(義林은 新羅人이라고 明記되어 있다.)



(玄超는 阿闍梨라고 보인다.)

◦ 占察經

菩提流志譯 隨代

占察善惡業報經 2卷

新羅에 傳來한 사람은 順(崇)濟, 孝成王 4年(740) 以前에 傳來한 것으로 본다.

三國遺事 卷4 義解 第5 眞表傳簡, 關東楓岳鉢淵藪石記 等に 記錄이 보인다.

◦ 大日經供養次第法疏 2卷

新羅僧 不可思議가 唐 善無畏三藏의 門下에서 本疏 2卷을 著述한 것이 現存하고 있다.

本疏 卷上에,

善無畏三藏和上 即是小僧不可思議多幸 面諳和上所聞法要隨分抄記.

同 卷下 末에,

此文造人新羅國零妙之寺釋不可思議隨分穿鑿.

上記의 文面으로 보아 善無畏가 唐에서 譯經에 從事하며 密敎를 弘傳할 때 (716年 來唐, 735年 入寂, 約 20年間 在唐) 이 무렵에 完成되었을 것이다. 그 後 곧 이어서 新羅에 傳來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本疏 2卷은 大日經을 中心으로 하여 胎藏界法을 行法할 때에는 必須不可缺의 供養次第法의 疏이므로 至極히 珍重한 章疏가 되는 것이다.

◦ 發菩提心論

龍猛菩薩造 不空譯

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 1卷(765~771)이 6年 中間에 翻譯되었다.

新羅 傳來人 및 傳來年代

惠日 傳來(大日經 惠日 傳來條 參照)

Ⅲ. 結 語

高麗 宣宗 7年(1090) 大覺國師 義天은 ‘新編諸宗敎藏總錄’ 3卷을 編纂하여 總 1,010部 4,740卷의 章疏를 收錄하였다. 이 目錄에 따라

敎藏都監에서는 數 많은 章疏를 새로 印刊하였다. 이 義天錄중에도 密敎關係의 章疏目이 많이 入錄되어 있어, 비록 正本三藏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하나의 다른 意味로서 密敎關係의 典籍이 이 當時를 前後하여 많이 流傳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高麗 忠肅王 15年, 致和 元年(1328) 5월에 益齊 李齊賢이 序한 ‘金書密敎大藏序’에 依하면 密敎經典 90卷을 金字로 書寫하였고, 또 未收의 經典 40卷도 增求하여 都合 130卷을 金字로 書寫한 史實의 記錄이 ‘益齊亂藁 卷5’에 있으나, 그 經目이 未詳하다. 그러나 未收의 40卷의 密敎經典이 求得된 事實도 重要하거니와 金字로 密敎經典을 書寫한 것은 經 自體의 尊崇과 아울러 密敎 崇信에 더 큰 意義를 가져야 하리라고 본다.

高麗大藏經의 初雕板 1,106部 5,048卷중에도 많은 密敎經典의 入藏이 있었겠으나 兵火로 灰燼되었고, 再雕板에는 總 81,258板, 1,512部, 6,791卷의 聖典이 入藏되어 있어 이 중에도 數 많은 密敎經典이 收藏되어 있음은 勿論이다. ★

參考文獻

一然 三國遺事

李能和著 朝鮮佛敎通史

權相老著 朝鮮佛敎略史

禹貞相 共著 韓國佛敎史
金煥泰

李齊賢著 益齊亂藁 卷5

白性郁博士 佛敎學論文集
頌壽設念

1. 越明基博士 ‘大覺國師의 天台의 思想과 續藏의 業績’

2. 閔泳珪博士 ‘新羅章疏錄’

趙明基博士 佛敎史學論叢中
華甲記念

朴泰華 ‘新羅時代의 密敎傳來攷’

- 大村西崖著 密教發達志
梅尾祥雲著 秘密佛教史
梅尾祥雲著 秘密事相研究
金岡秀友著 密教哲學
松長有慶著 密教歷史
松長有慶著 密教相承者
忽滑谷快天著 朝鮮禪教史
昭和 new 纂 國譯大藏經
 解說部 第2卷 佛典解說
大正新修大藏經 密教部 第1, 2, 3, 4卷
大正新修大藏經 史傳部 第1, 2, 3, 4卷
大正新修大藏經 圖像部 第11卷
李弘植編 國史大事典
望月 佛教大辭典